



국내·외 축산소식



“젖소는 유형자산, 한우는 재고”

젖소는 유형자산이지만 한우는 재고자산이다.

또 씨돼지, 과일나무 등은 유형자산인 반면 수확 이전의 벼와 사육기간이 1년 미만인 산란용 닭은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 이는 농림부가 19일 마련한 농업회계기준 제정안의 내용이다.

농업회계기준이란 일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금융업이나 건설업종이 별도의 회계처리준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농업도 특수성을 반영해 회계처리할 수 있게 지원하려는 것으로 2004년부터 연구용역과 토론 등이 진행돼왔다.

농림부는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올상반기중 회계기준 제·개정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회계연구원에 농업회계기준을 반영토록 건의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회계기장 의무가 있는 영농법인이나 매출 3억원 이상의 축산농가에서 회계처리 지침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농업회계기준은 동물과 식물 즉 생물을 어떤 방식으로 회계처리할지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1년넘게 사용할 것으로 예

상되는 것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해 젖소, 씨돼지, 과일 나무를 포함시켰다.

이에 비해 달걀 생산을 목적으로 키우는 닭은 개별 관리가 어렵고 사육기간도 길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재고자산으로 분류했다. 축산물로 자체 소비되는 한우나 돼지, 미수확 상태의 벼, 채소, 과일 등도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과정중에 있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됐다. 제정안은 또 취득원가, 수익인식 시점, 가족 노임의 회계처리 방식 등도 규정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업법인 등 농기업의 발전으로 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한국회계연구원이 올해 시행을 목표로 기준 제정을 준비하다가 일단 보류한 상태”라며 “농업회계기준이 활성화되면 농가의 금융기관 대출 등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제 가축사료 북한 간다

전북 김제지역에서 생산된 가축사료가 북한 고성지역 주민에게 전달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제시협의회(회장 송승영)는 북한지역 축산 농가의 사료난

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 김제사료공장에서 생산된 가축 사료 25t을 북한에 보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민주평통은 이에 따라 이날 김제사료공장에서 가축 사료를 5t트럭 5대에 나눠 싣고 북한 고성을 향해 출발했다.

이 가축사료는 전주·김제·원주축협(조합장 김창수)이 최근 관내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북한에 통일사료 보내기 운동'을 벌여 모금한 1천만원으로 구입한 것이다.

민주평통 김제시협회는 작년에도 김제지평선축제 기간 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북한에 통일보리쌀 보내기 운동을 벌여 모금한 2천만원으로 보리쌀 460가마(가마당 40kg)를 구입, 북한에 보냈다.



계란 '안 깨고' 신선도 판별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는 계란을 깨지 않고 신선도와 품질을 판별할 수 있는 비파괴 계란품질 평가 시스템 '에그라이저'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계란의 신선도 측정은 샘플을 선택해 깬 다음 노른자를 둘러싼 난백(卵白)이라는 흰자위의 높이를 측정, 높을수록 신선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기존 방법은 시간과 인력 소요가 많고 전량을 검사할 수 없어 유통 과정상의 신선도 변화에는 대처할 수 없는 등 단점이 많았다.

에그라이저는 근적외선을 계란에 쏘여 난백을 측정하도록 설계됐으며 1분당 600개 이상의 계란을 손상 없이 99% 이상의 정확도로 선별할 수 있다.

또 에그라이저는 소비자의 혐오 대상인 혈란(血卵)

까지 선별할 수 있어 고품질계란 유통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축산연구소는 밝혔다.

축산연구소는 특히 출원된 비파괴 계란품질 평가 시스템을 이날 산업체에 기술이전했다. 축산연구소가 금과 이덕수 과장은 "빛을 이용한 신선도와 혈란 판정 방법은 세계 처음으로 개발된 것"이라며 "기술의 해외 수출은 물론 고품질 계란 유통으로 어려운 양계농가 소득증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http://blog.yonhapnews.co.kr/geen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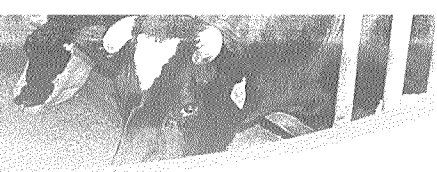
“농축산물에 셀레늄 인위적으로 넣지 마세요”

쌀 등 농축산물을 재배, 생산하면서 일부 농가에서 몸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 셀레늄 등 독성이 있는 위해 우려 화학물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식품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웰빙을 추구하는 식생활 변화 추세에 맞춰 일부 농업인들이 기능성 식용 농축산물을 재배, 사육하는 과정에서 셀레늄과 게르마늄 등 다량 섭취하면 오히려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고 있다며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협조공문을 농림부에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유명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에서 셀레늄을 함유한 쌀이 판매되었다. 또 셀레늄을 섞은 사료로 키운 젓소에서 생산된 우유와 닭고기, 돼지고기, 계란, 밀가루 등도 시중에 선보였다.

셀레늄은 무기질 영양소로 결핍되면 간장애, 근무력 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독성이 있는 원소로,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에 다량 들어있어 현재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셀레늄



결핍으로 인한 문제는 없다는 게 식약청의 판단이다.

식약청 위해관리팀 관계자는 “셀레늄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심혈관계 이상이나 손톱·피부질환, 탈모, 보행장애, 마비, 구토, 설사 등의 독성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식약청은 셀레늄을 식품첨가물로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말레이시아]

호주산 쇠고기 수입 재개

말레이시아가 호주의 소 도축방식을 인정하면서 호주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는 호주 도축장에서 사용되는 도축방식이 이슬람 율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05년도에 호주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최고 종교당국은 호주 도축장에서 압축공기를 이용한 소 기절방식이 이슬람 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섯 곳의 수출작업장들에 대한 말레이시아로의 수출이 다음 달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Agriworld]



축산물자율수급조절지원사업

폐지위기

농림사업평가서 평점 C 내년부터 신규지원 중단결정

농림부가 양돈과 가금산업부문에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자율수급조절지원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어 사업 존치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부 재정평가담당관실은 지난해 농림사업투용자

평가에서 축산물자율수급조절지원사업(가금 750억원, 양돈 250억원)이 C등급으로 도출돼 2007년부터 신규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평가 결과는 축산물수급조절 사업이 가격이 불안할 경우 생산조절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나 최근에는 소비촉진, 조사연구 등으로 변경되면서 자조금사업과 축산물수급안정자금 등과 중복 지원되는 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재정평가담당관실은 밝혔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질병발생과 생산량에 따라 큰 폭의 가격등락을 거듭하는 가금, 양돈부분의 경우 위기 발생시 신속한 조기 대응 체제 확립 등 수급조절시스템의 상시가동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

특히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질병과 부위별 소비 편중 등 수급불균형 요인이 산재하고 수급안정제도가 미정착된 현실에서 수급안정사업의 실행기구는 절대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17일, 20일 잇달아 열린 양돈 및 가금안정수급위원회에서도 이같은 의견이 속출했다.

수급위원들은 “대외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축산업 여건에서 민간자율수급 조절 기구가 없어질 경우 축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직접 손실보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Seed Money를 통한 간접보조형식의 사업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축산물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업평가 결과가 자조금사업과 대폭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점과 관련 수급위 사업을 자조금 사업과 차별화하여 더욱 심도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수급위원들은 입을 모았다.

정민국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수급조절사업이 2007년부터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을 유지



국내·외 축산소식

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수급 위기의 역할과 기능, 향후 운영방향 등 확실한 운영방안과 유지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정주 건국대학교 교수도 “합리적 논리가 뒷받리지 않을 경우 사업 폐지의 위험이 높은 만큼 수급조절 사업 유지를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리개발에 업계가 공동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경제신문]



[세계식량기구]

광우병 발생률 감소하고 있다

전 세계의 광우병 및 인간 광우병 발생률이 점차 감소하면서 광우병과의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고 국제식량기구는 밝혔다.

국제식량기구측은 “광우병 감염률은 2003년 이후부터 해마다 50%씩 감소했다. 2003년 광우병 감염두수는 1,646두, 2004년에는 878두, 2005년에는 474두를 기록했다. 광우병 감염률이 가장 컸던 해는 1992이며, 전 세계 소 수천 마리 당 10여 두가 감염되었다.”라고 전했다.

2005년 인간 광우병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5명이며, 이들 모두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5명 모두 영국에서 발견되었다. 영국의 인간 광우병 사망자는 2003년에 18명, 2004년에 9명을 기록했었다. 세계식량기구는 각 국가들이 광우병 안전대책들을 유지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AP]



“이래서는 구제역 못 막는데...”

축산물 불법휴대반입 하루최고 70건... 검역원, 국경방역 홍보에 박차

인천국제공항을 출입하는 여행객 중 축산물을 불법으로 휴대반입해 검역관에게 해당물품을 압수당하는 경우가 하루 최고 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탐지견을 동원해 축산물을 가방에 넣어오는 등 불법으로 들어오는 것을 조사한 결과 하루 최고 70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현재 검역원은 19마리의 탐지견과 11명의 핸들러를 인천국제공항에 투입해 축산물의 불법휴대반입을 막고 있다.

검역원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AI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인데다 근접국가에서 구제역 발생이 속속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행객의 신고되지 않은 축산물 반입은 위험천만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에서는 검역원에서 제작한 3D애니메이션을 여행객이 상시로 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3D애니메이션 역시 여행객의 무지로 인해 들어온 축산물이 바이러스를 포함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내 가축에 질병을 퍼뜨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여행객이 휴대반입해 적발된 건은 주로 축산물 가공품에 의한 것이었고, 가공형태는 사탕포장지에 들어있는 말린 육포, 반조리돼 포장된 육개장 등 다양하다.

불법휴대에 적발된 여행객들은 국경방역의 무지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검역원 위성환 방역과장은 “홈페이지에 대국민 관심고조와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가축방역 퀴즈풀이 '과란펜'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달 다른 주제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방역 사항을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들에게 상품을 주는 등 이벤트도 마련해 방역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수의축산]

장에는 직원과 수의학 전문가 이외에는 출입이 금지됐다. [베를린=연합뉴스]



[독일]

베를린에서 첫 AI 감염 확인

독일 전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조류가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 베를린에서 처음으로 폐사한 야생조류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독일 보건 당국이 24일 밝혔다.

프리드리히-뢰플러 수의학 연구소는 베를린 북동부의 마르찬 - 헬러스도르프 구역에서 죽은 채 발견된 야생 말뚝가리에서 치명적인 AI 바이러스인 H5N1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는 브란덴부르크주에서도 이달 초 폐사한 검둥오리, 야생백조, 황조롱이가 H5N1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

독일에서는 2월 중순 북부 튀겐섬에서 AI 바이러스에 감염돼 폐사한 백조가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독일 전체 16개주 중 6개 주에서 약 200건의 AI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독일 전역으로 AI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고양이와 닭 등 포유류에도 AI 감염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독일 정부는 비상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 당국은 H5N1에 감염된 야생조류가 발견된 주에서는 고양이는 외출을 금지 하고 개도 줄에 매지 않고는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가금류 농



돼지고기냉도체

육질 등급 판정 이후...

돼지고기 육질등급화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돼지냉도체 육질등급판정으로 PSE(물돼지)육의 출현율이 감소하는 등 육질개선효과가 나타나 소비자들에게는 우수한 품질의 돼지고기를 공급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농가들의 노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자료에 따르면 PSE육 출현율은 2004년도의 경우 13.9%에 달했지만 올 1, 2월 7.7%까지 하락해 돼지고기 육질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두수도 증가하고 있다. 2005년도 돼지냉도체 육질등급판정두수는 15만5401두로 2004년(4월부터 12월까지 통계) 8만6929두보다 78.7% 증가했다.

같은 기간인 2005년 4월부터 12월까지 통계(12만 7086두)와 비교해도 46.2% 늘어났다. 냉도체 육질등급판정지정작업장은 2004년 16곳에서 현재 20곳으로 25% 증가했다.

일반 도체등급판정을 받는 돼지고기 비율 중 냉도체 육질등급판정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0.59%에서 2005년 1.16%, 2006년 1.37%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업계 관계자들은 등심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육질등급판정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삼겹살까지 포함하는 등 등급판정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육질등급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축장의 가동률이 현저히 낮은 가운데 구조변경, 설비보완 등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가 쉽지 않고 추가적인 인력 지원도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윤갑석 축산물등급판정소 차장은 “작업장에 냉장고 공간의 충분한 확보 등의 시설적인 보완과 인력적인 충원도 필요하다”면서 “육가공업체들이 등심 외에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삼겹살도 포함해달라고 요청해 관련 법의 기준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어민신문]

으로 늘었다.

독일의 경우 베를린 동부 외곽지역에서 죽은 야생 말뚝가리가 치명적인 H5N1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 베를린에서도 첫 감염사례가 발생했다.

이밖에 중동지역에서도 AI가 확산되면서 요르단에서는 최소한 3마리의 칠면조가 H5N1에 감염돼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 요르단 보건장관인 사이드 다르와제는 사람이 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요르단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하이·베를린·암만AP·로이터=연합뉴스]



미농무성, 일본으로 전문가팀 파견

Mike Johanns 미 농무장관은 오늘 미 농무성이 일본 정부관료들과의 3월 28일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의 재개 논의를 위해 전문가 팀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의 조속한 수입재개를 위해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본으로의 비허용품목 혼입 선적건에 대해 미국의 보고서가 매우 철저하며, 이 건에 대한 특이한 상황을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의 바람은 무역 정상화를 향한 다음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라고 Johanns 장관은 밝혔다.

Mike Johanns 장관은 일본 정부의 추가 회의 의사를 확인한 후 미농무성의 전문가 팀이 일본을 방문하도록 지시하였다.

전문가 팀은 Chuck Lambert 차관보가 이끌 예정이며, 이 팀에는 미농무성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SIS), 농업마케팅국(AMS), 및 동식물검역소(APHIS)의 담당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중국] 20대 상하이 여성 AI 사망 확인

이번주초 중국 상하이에서 숨진 20대 여성의 사인이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인됐다고 신화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중국 위생부는 이날 상하이에 살던 29살의 여성이 AI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성이 리로만 알려진 이 여성은 타 지역 출신의 노동자로 지난 13일 발열 및 폐렴 증세를 보이다 지난 21일 숨졌다.

상하이시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인체에 치명적인 H5N1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말 이후 15명이 AI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중 10명이 숨졌다.

캄보디아의 프놈펜 서부 60km 지역에서도 지난 21일 숨진 3살의 여자 어린이가 H5N1에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돼 캄보디아의 AI 사망자수는 모두 5명



일본은 지난 2005년 12월 11일 미국산쇠고기에 대해 수입재개를 했으나, 2006년 1월 26일 식품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본 수출협정에 맞지 않는 제품이 혼입된 쇠고기가 발견되면서 수입이 잠정중단되었다.

[미국육류수출협회]



돈열항체 첫 발견 업체에 보상 요구 추진

양돈협 제주도협, “양돈업 중단”도 ... 농가서명 전개
청정지역에서의 돈콜레라 항체 발견과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제주도 지역 양돈농가들이 항체가 처음 발견된 종돈장 소유 기업에 대해 피해보상 요구를 추진하고 나섰다.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열린 양돈협회 제주도협의회(회장 김성찬) 월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금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채혈검사서 돈콜레라 항체가 발견되고 있는 데다 질병피해가 지속, 제주지역 돼지생산기반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협의회는 특히 정부의 공식발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양돈업계 대부분은 항체가 처음 발견된 T종돈장이 최근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해당종돈장 소유 기업에 대해 이번 사태로 인한 양돈농가 피해보상을 요구키로 했다.

또한 해당기업이 제주도 양돈업 중단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마련, 제주도 양돈농가들의 서명을 받아 양돈협회 중앙회로 이를 공식 건의키로 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조만간 자치특별법이 발효되는 제주도의 명실상부한 1위기업이 자본과 막강한 영향력을 앞세워 1차산업인 양돈업을 좌우, 결과적으로 소

규모 농가들이 자립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지역의 한 양돈업계 관계자는 “T종돈장의 위탁 및 분양농장, 주변지역 양돈장은 지금도 질병이 적지 않은 반면 그 외 농장들은 별다른 피해가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 오염사료가 원인이고 전파되지 않는다는 정부 발표를 쉽게 수용할수 있겠느냐”고 반문, 그 배경을 설명했다.

[축산신문]



농림부 한·미 FTA 농업협상 전담기구 FTA2과 설치

농림부 내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농업분야 협상 전담기구가 설치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외교통상부·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농림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 등에 한·미 FTA 협상을 담당할 인력 59명을 충원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업분야 협상을 담당할 FTA2과를 한시적으로 운용키로 하고, 인원 4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또한 FTA2과와는 별도로 품목별 영향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는 국내대책반과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조정하는 종합대책반도 운용키로 했다.

한편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쌀을 반드시 개방 예외품목으로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이차관은 “FTA의 성공적 협상을 위해서는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에 대한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지킬 것은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 규모에 대한 추정이 제 각각이란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한 피해 총액은 정부 실무자 입장에서는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면서 “농림부는 현재 개별 품목별 피해 분석에 매달리고 있고, 이를 토대로 협상전략과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농민신문]



축단협, 축산 3대현안 해결 '사활'

축단협 대표자회의 ... 회장에 남호경 한우협회장 재추대

한미 FTA, 농지법 개정, 축산물 가공업무의 농림부 존치 등 축산 3대 현안 해결을 위한 축산관련단체의 의지가 결연하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21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올해 두 번째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이같이 선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매진하기로 했다.

축단협은 또 올해로 임기만료된 회장에 현 남호경 한우협회장을 재추대하고, 축산관련단체들이 일사분란하게 축산 현안에 대응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같이했다.

축단협은 특히 한미 FTA와 관련, 축산관련 단체중 최소 3~4개 단체가 '한미 FTA농축수산물비상대책위원회'에 가입해 활동키로 함으로써 축산단체가 소외되지 않은 가운데 축산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장에 재추대된 남호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큰 축산현안들을 앞두고 다시 축단협 회장직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우리 축산업계가 모두가 의지를 다

지고 힘을 모아 한미FTA를 저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회장으로서는 회원단체들의 어려움을 듣기위해 열린 마음으로 회장직을 수행할 것”이라 말하고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임원 개선에서는 현 부회장인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최영열 양돈협회장을 그대로 유임시키는데 이어 경험이 풍부한 축산업계원로를 부회장으로 추가 선임키로 하고, 추가 선임은 추후에 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사에는 ▲유동준단미사료협회장 ▲조병 대한민국축개량협회장을 선임했다.

[축산신문]



오는 29일 가축분뇨 활용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 공청회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 공청회가 오는 29일 서울 성내동 소재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농림부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9월 구성된 자연순환농업팀이 6개월 동안 지자체, 농업관련 기관·단체,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후 마련된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다.

이상철 농림부 자연순환농업팀장이 대책(안)을 발표하고 오인환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지정토론자로는 △손이현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사무국장 △유종원 상지대 교수 △진길부 도드람양돈농협 조합장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 △홍준근 쌀전업농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농수축산신문]



브루셀라 감염 한우 14마리 살처분

인천지역에서 울들어 처음으로 한우 14마리가 브루셀라에 감염돼 20일 살처분됐다.

인천시는 강화군 내가면 고천4리 이 모씨의 한우농가에서 사육중인 한우 15마리중 14마리가 지난 14일 브루셀라 병균에 감염돼 이날 모두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시는 “역학조사 결과 이씨가 지난 2004년 6월경 경기도 양주지역에서 임신한 한우 암소 10마리와 지난해 5월 같은지역에서 5마리를 추가 구입했으며, 이 가운데 지난해 6월 구입한 한우 5마리는 전부 유산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이씨 농가의 축사와 주변에 대해 강화군과 인천시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주 2회 이상 3개월간 정기소독을 지원하고, 차량 및 외부인에 대한 출입통제와 함께 인체감염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서도록 했다.

브루셀라균이 소에 감염되면 임신 말기 유산이나 불임 등의 증세를 보이고 사람에게 전염되면 두통과 발열 등 감기 증세를 보이다 관절염으로 발전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지난해 인천지역에서는 9곳의 농가에서 총 15마리의 한우가 브루셀라에 감염돼 살처분됐다.

[연합뉴스]



작년 축산물 시장 외산 '폭증'

05년도에 수입된 쇠고기는 냉장육이 전년대비 61%

급증한 1만9천507톤(갈비 4,715, 등심 870, 목심 5,907, 사태 257, 설도 836, 안심 1,323, 앞다리 1,308, 양지 1,013, 우둔 1,556, 채끝 228, 기타 1,494)이 수입됐으며 국가별로는 호주 1만8천610톤, 뉴질랜드 812톤, 멕시코 812톤 순으로 수입됐다. 부위별로는 기타부위 937톤, 양지 457톤, 안심 446톤, 설도 423톤, 우둔 291톤, 앞다리 170톤 등의 순으로 증가됐다.

이는 미산 쇠고기에 대한 대체수요가 곡물사육한 호주산을 위주로 형성됐으며, 대형할인마트 중심으로 시장질서가 재편됨에 따라 수입육 중간유통과정이 대폭 생략되고 번거로운 냉동과정 없이 시기별 수요량을 그때그때 충족시키는 형태의 냉장육 유통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수입쇠고기 시장의 86%를 점유하고 있는 냉동육은 12만3천94톤(갈비 35,985, 등심 1,788, 목심 22,656, 사태 7,832, 설도 3,457, 안심 914, 앞다리 12,959, 양지 10,259, 우둔 4,566, 채끝 463, 기타 22,215)이 수입됐으며 국가별로는 호주 8만2천773톤, 뉴질랜드 3만8천180톤, 멕시코 2천141톤 순으로 수입됐다.

돼지고기는 냉장육이 전년대비 160% 증가한 6천416톤(갈비 109, 목심 428, 삼겹살 5,539, 안심 22, 앞다리 118, 기타 200)이 수입됐으며 이중 삼겹살의 국가별 수입량은 미국이 3천872톤, 캐나다 1천21톤, 호주 346톤, 멕시코 174톤, 네덜란드 97톤, 벨기에 27톤, 오스트리아 2톤 순이다. 부위별로는 삼겹살이 3천207톤, 목심이 394톤씩 각각 증가했다.

냉동육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16만7천178톤(갈비 23,993, 목심 24,399, 등심 668, 뒷다리 1,203, 삼겹살 77,423, 안심 755, 앞다리 14,493, 기타



24,244)이며 이중 삼겹살의 국가별 수입 물량은 칠레 1만5천776톤, 벨기에 1만5천749톤, 프랑스 1만1천503톤, 네덜란드 8천537톤, 덴마크 7천352톤, 오스트리아 5천817톤, 헝가리 3천238톤, 폴란드 2천715톤, 스페인 2천575톤, 미국 1천28톤 등의 순이다.

부위별 증가량은 기타부위가 2만457톤, 삼겹살 1만5천271톤, 목심 1만719톤, 앞다리 1천144톤, 뒷다리 512톤, 등심 297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냉장돈육 수입량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산 가격의 고공행진이 지속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입돈육 유통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며, 구이중심의 우리나라 식문화에서 생고기가 선호됨에 따라 고급냉장육의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는 기타부위 강세는 국내산이든 수입이든 삼겹이나 목심과 같은 선호부위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가격대비 품질만족도가 높은 등갈비, 등뼈, 목뼈 등에 대한 대체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예상한 수입업체들이 미국의 쇠고기 팩커들과 거래선을 확보키 위해 돈육수입량을 대대적으로 늘린 것도 돈육수입량이 급증한 원인으로 유통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쇠고기와 돼지고기 모두 냉장육 수입이 두드러지는 등 수입육 분야에서도 소비자들의 고급육 선호추세가 강해지는 것으로 관련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한편 닭고기는 냉장육은 수입물량이 없으며 냉동육은 전년대비 124% 급증한 5만2천766톤(가슴 395, 날개 9,956, 다리 42,098, 전체육 263, 기타 54)이며 이중 다리의 국가별 수입량으로는 미국이 2만6천771톤, 덴마크가 1만1천866톤, 영국 1천502톤, 브라질이

1천201톤, 프랑스 757 등의 순으로 집계됐는데, 국내산 가격상승으로 인해 원료조달이 원활하지 못했던 햄·소시지 등 2차 육가공업체들이 냉동계육의 주요 소비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신문]



[캐나다] 4번째 광우병소 사료제한 조치 이후 출생

캐나다식품검역원(CFIA)은 지난 1월 23일 앨버타 지역에서 발생한 4번째 광우병 감염소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소는 2000년 4월 15일 태어난 홀스타인-헤어포드 교잡 암소로 사료제한조치 이전에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원에 대해서는 추적 검사 결과 오염된 사료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CFIA는 이번 발견은 예견되지 않은 사건은 아니며 또한 BSE의 위험을 줄이고 근절시키기 위해 시행한 정책들에 대한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미 BSE 발생 경력이 있는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CFIA는 이번 경우로 인해 현재의 사료제한 조치를 더욱 확대 지속해야할 당위성을 가지게 됐다고 강조하고 사료제한조치의 철저한 준수 및 강력한 시행 정책을 통해 BSE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4번째 광우병 감염소가 사료제한조치 이전에 태어난 소라는 사실이 BSE 위험도가 낮은 국가라는 캐나다의 위상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권고안에 따라 이번 발견



이 캐나다의 생우 및 쇠고기 제품 수출 역량에 미치는 영향 역시 없다고 밝혔다. CFIA는 오히려 금번 발견은 캐나다가 시행하고 있는 BSE 예찰제도의 신뢰성과, 캐나다의 BSE 근절을 위해 기여하는 생산자 및 수의사들의 헌신적 노력의 산물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우육수출협회 참조]



미국산 쇠고기 수입 5월로 미뤄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5월경으로 미뤄지게 됐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의 나이가 미국 측 주장대로 10세 이상의 늙은 소인지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30개월 미만의 뼈를 제거한 살코기에 한해 수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단백질 사료금지 조치가 취해진 1998년 4월 이전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했다면 국내 수입 쇠고기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국제수의사무국(OIE)도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는 국가 간 무역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30개월 미만 쇠고기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쇠고기로 봐야 한다.

현재 미국 당국은 광우병 발생 소가 1998년 이전에 태어난 소라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농림부는 이 결과를 보고 미국 현지 수출 작업장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농림부는 미국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당초 일부 작업장만 현지 점검하려던 계획을 바꿔 수출 작업장 33개소를 모두 점검기로 했다.

현지 점검은 경험이 풍부한 검역관들이 미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작업장 시설 위생과 함께 뇌와 척수 등

광우병 특정위험부위(SRM)를 얼마나 완벽하게 제거하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미국 측 조사와 우리나라의 현지 점검에는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오는 5월은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국내 쇠고기 시장은 2001년 1월에 완전히 개방됐으나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BSE)이 발병함에 따라 2년 넘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돼 왔다.

[농림부]



美정육회사 “광우병 검사 막지말라” 농무부 제소

미국에서 세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가운데 미국의 한 정육업체는 23일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려는 자사의 계획을 막는다는 이유로 미 농무부를 법원에 제소했다.

미국 정육회사 크리크스톤 팜스 프리미엄 비프는 자사가 도축하는 모든 소에 대해 자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쇠고기의 안정성을 입증하려는 자사의 계획을 저지당했다며 농무부를 상대로 워싱턴 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 회사의 존 스투어트 사장은 미국산 쇠고기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함을 확신하고 있으나 일본인들을 비롯한 해외 소비자들이 이를 믿지 않고 있다며 자사가 도축하는 모든 소에 대해 자체 광우병 검사를 통해 이를 입증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스튜어트 사장은 이를 위해 농무부에 자체 검사 허용을 요청했으나 농무부측은 광우병 검사권한은 정부에 있다며 검사를 강행할 경우 형사처벌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축산소식

미 농무부는 광우병은 잠복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린 소에서는 발견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미국 내에서 도축되는 연간 3천500만마리의 소 중 약 1%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히려 검사 비용을 더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거의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다.

스튜어트 사장은 그러나 소비자들이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믿지 않는 마당에 모두 검사를 하는게 필요하다고 하며, 농무부가 독성물질 규제와 관련된 낮은 법규정을 근거로 민간회사의 자체 검사를 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마당에 광우병 검사 소의 비율을 낮추려는 미국 정부 방침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광우병 검사비용도 두당 20달러 정도로 그다지 비싸지 않다고 지적했다.

크리크스톤사는 2003년 이후 일본의 미국 쇠고기 수입 금지조치로 판로가 막혀 150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등 경영난을 겪어왔다.

이에 대해 농무부측은 "검사는 식품 안전의 수단이 아니다"라며 민간회사 광우병 검사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업체의 자체 검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농협공판장 쇠고기이력추적 전면 실시

서울·부천·고령·나주 4곳 공판장 모두 동참

농협중앙회 4개 축산물공판장이 모두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사업에 동참하게 됐다.

농협중앙회 서울, 부천, 고령축산물공판장에 이어 나주축산물공판장도 순한한우와 함평천지한우 등 우

수브랜드를 선정하고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의 중간단계인 도축·가공사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농협 축산물공판장에 출하하는 소에 대해 출생에서 판매에 이르는 각 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문제 발생시 이동 경로를 따라 추적, 원인규명과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해졌다. [수의축산신문]



미국, 1월 소·돼지 수출 전년 대비 큰폭 증가

미농무부(USDA) 발표에 따르면 2006년 1월 미국산 쇠고기(부산물 포함) 총 수출량은 4만8,116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수출량 3만3,886톤에 비해 42% 증가했다. 수출금액은 지난해 1월의 1억5,500만달러보다 9,110만달러 증가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수출국가는 멕시코로 1월 한달 동안 약 2만9,121톤의 쇠고기를 수출했으며 수출금액은 1억 207만 달러를 기록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1월 수출량은 약 10만2,07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0% 증가했다. 수출금액은 지난해 대비 14% 증가한 2억1,780만달러를 기록했다.

그 중 일본으로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2만5,086톤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했으나 수출금액은 7,89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다.

1월 한달 동안 미국산 돼지고기의 최대 수출국가 역시 쇠고기와 동일하게 멕시코 나타났다. 미국은 멕시코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3만5,159톤의 미국산 돼지고기를 수출했으며 수출금액은 16% 증가한 5,140만달러였다.

[미국육류수출협회 참조] ㉟